



회고록으로 보는 이민 시리즈

송영석 천로 역정

한밤 총소리에 갯벌에 엎드려 느낀 죽음의 공포

목숨 건 황해도 탈출

(두번째 이야기)

625 전란중 낯선 아저씨를 따라 황해도 해주를 떠난 그 순간이 결국 나와 어머니와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이야! 우리 가족 중에는 이미 아버지와 형 그리고 누이 둘이 이미 남한으로 내려 갔으나, 아무 누구도 남한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이 없어서 어머니는 늘 궁금해 하셨다.

날이 어두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일행들과 함께 조심 조심 한참을 걷다 보니 바다가 보이고 갯벌로 들어서게 되었다. 한참을 걷는 중에 뒷 쪽에서 누군가가 우리 일행을 향하여 요란 스투게 총을 쏘아대는 것이다. 우리 일행들은 갑작스런 총소리에 놀라 다들 흩어져 갯벌에 바짝 엎드려 숨을 죽이고 총 소리가 멈추어 주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웠다. 계속되는 총소리에 여기서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생각한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나는 며칠 전에도 남쪽에서 날아온 비행기들의 폭격 때문에 죽을 고비도 맞았고 폭격 맞아 집들이 파괴 되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있는 것도 보았다.

또 그 전에는 반동 가족 수백명이 함께 학살당한 곳에도 동네 애들과 함께 겁도없이 일부러 찾아가 널려져 있는 시체들을 보고 돌아온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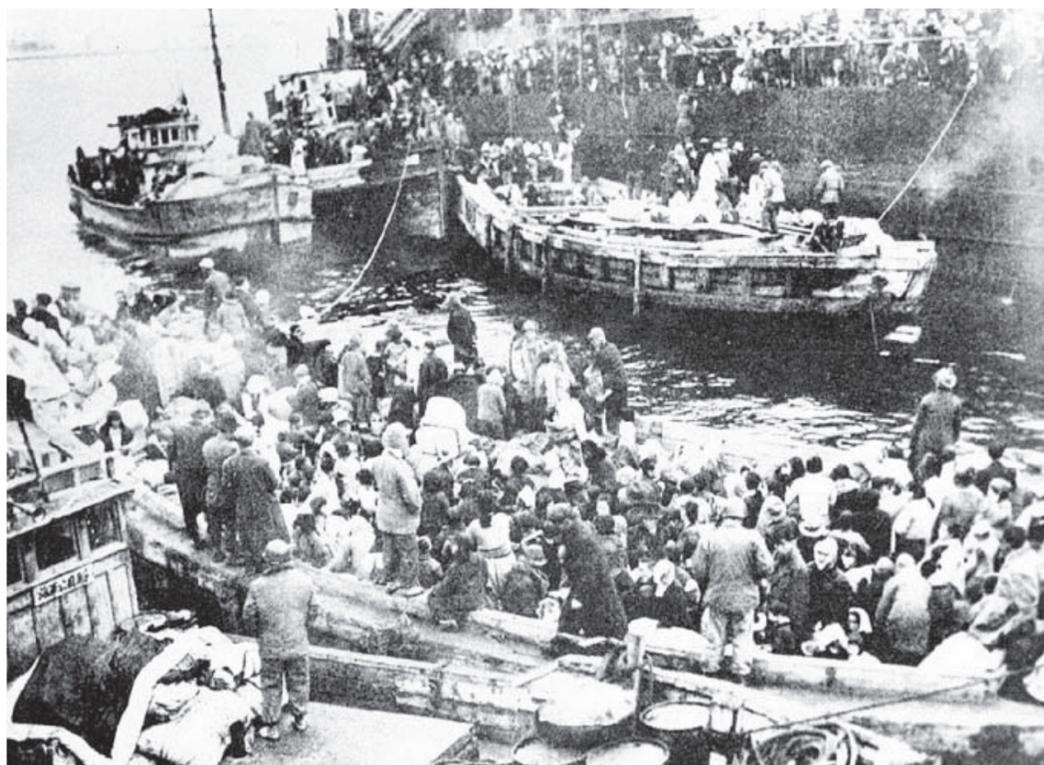
니를 포함한 우리 일행들을 죽이려고 총을 쏘아대니 무섭기만 하다. 어떡하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정말 무섭기만 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동네 애들 한데 들었던 하나님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하며 마음 속으로 웅얼거렸다.

안개속 설사 만나 일행을 뒀던 11살 소년

이런 저런 생각을 잠시 하는 동안 총소리가 잠깐 멈추었고 그때부터 우리 일행들은 안내인의 뒤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이미 갯벌에는 안개가 끼었고 어두워 졌으며 또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 어른들을 쫓아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뱃속에서는 계속 꾸룩 꾸룩 소리가 나더니 설사가 나는 바람에 잠시 멈춰 급하게 일을 보고 일행들을 곧 쫓아가 뒤를 따랐지만 두 번째로 일을 보고 일어나니, 눈 앞에 짙긴 안개와 어두움에 전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 버리고 말았다.

일행들의 뛰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시끄러운 바닷물 소리만 들린다. 안내인과 일행들을 잃어 버렸으니, 이제 나는 큰일이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안내인 아저씨 뒤만 따라 가야 한다"고 하신 어머니가 생각 난다. 이제 일행들을 잃어 버렸으니 만약 찾지 못한다면 여기서 죽겠구나 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일행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까? 나는 너무나 무서웠다. "아저씨 저 좀 데리고 가 주세요" "아저씨 어디 계세요?" 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목 소리가 나오질 않으니 큰 일이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일행들을 못 만나면 바닷 물에 잠겨 죽을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공포심이 머리에 떠나질 않는다.

우리를 태우러 온다는 배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별 별 생각이 다 든다. 잠시 생각 끝에 우측 방향으로 가보자 하고 일행들의 말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바짝 세우고 뛰기 시작했다. 한 참을 뛰다 보니 내 앞에 큰 개울이 있었으나 건널 생각을 감히 못하고 개울 따라 계속해서 뛰었다. 그러던 중 일행들의 말소리가 귀에 어렴풋이 들리는 것이다. 나는 그때 "이제 살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 일행들은 안내인 까지 19명 이었고, 전부 남자 어른들였으며 11살 된 아이는 하나 있었다. 넓은 개울을 건너야 하는데 아이가 안보이니 걱정이 되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고마운 분이셨다. 그 중에서도 건장한 두 분이 나의 양쪽 겨드랑이를 높이 쳐들어 주어 개울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그분들의 은혜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건넌 후에도 약속 장소까지 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지나 도착해 보니 이번에는 우리를 태우고 갈 배와 연락이 안된다

는 것이다. 밤은 깊었고 안개로 한 치 앞도 안보이고 물은 많이 차오르는데 우리가 탈출하는 과정에 총소리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고, 19명 모두가 죽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곳도 위험한 지역이니가 기다리다가 돌아 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안내인은 라이타로 불을 번쩍 번쩍하며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고 또 이상한 새 소리로를 내며 신호를 하는 것 같다. 일행들은 숨을 죽이고 긴장속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적막이 흐르는 가운데, 갑자기 여러 척의 보트에서 동시에 전지 불을 우리에게 비추며 췌! 췌! 하며 조용히 보트에 빨리 올라타라는 것이 아닌가!

아! 이제야 우리가 살겠구나! 우리들을 태운 보트는 한참을 가더니 큰 목선 앞에 섰고 동쪽에서는 아침 해가 솟아 오른다. 우리 일행은 목선으로 배를 갈아 타게 되었고, 배에 오르고 보니 거기에는 십여명의 완전 무장한 국군 아저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들을 보는 순간 너무나 반기웠다. 안내인 아저씨는 나에게 다가오더니 우리가 무사히 이남으로 내려가게 되면 총 7 발을 쏠 터이니 그 총소리를 들으면 안전하게 도착한 신호라고 어머니와 약속을 하셨다면, 국군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어머니 사시는 곳을 향하여 일곱

발의 총소리를 내는 것을 옆에서 들을 수가 있었다.

강화도 교동에서 인천행 배타다

타고온 목선은 이제 강화도 교동면 선착장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각자가 남한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나에게도 질문을 하였으나 안내인의 설명으로 나는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내 옆에 아무도 없는 혼자 되었다. 궁금하고 물어볼 것이 많은데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지금부터 어디를 어떻게 찾아 가야 우리 식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며 우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

보았다. 인천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인천에 도착하면 서울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 난다. 서울에 가면 왕십리에 큰 누나가 서울사범학교에 유학할 때 사둔 집이 있으니 찾아가 보라는 말씀이셨다. 일단은 인천에 가는 배를 타기로 결정하고 남들 따라 배에 올랐다.

엔진으로 가는 배를 평생 처음 타보게되었다. 나는 전날부터 잔등에 지고 있던 보따리를 사람들이 앉아 있는 적당한 곳마다 내려 놓고 가벼운 몸으로 배 앞쪽으로 다가 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며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신기하게 보았다.

한참 후에 짐있는 쪽으로

돌아서서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를 쳐다 보더니 "너, 연안 대성여관집 아들 아니냐?"고 물으면서, "너희 가족은 어디있냐? 왜 너 혼자냐? 어디를 가냐?"고 계속해도 대답을 못하고, 머리만 끄덕이고 있으니까, "네가 왜 이렇게 됐냐?" 하시면서 듣기라도 하라는 것 같다.

뒤에 알았지만 그 아주머니는 이모부 남동생의 부인이었다. 너희 이모부가 이제 이배가 도착하는 강화섬 '건들'이라는 곳에서, 피난민 연락소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알려 주신다. 그 이모부 가족은 황해도 웅진에 사셨고 그 가족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모님 가족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배가 '건들'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주머니에게 인사드리고 배에서 내렸다. 이제부터는 이곳에서 이모님 식구를 찾으면 우리 가족들의 소식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부지런히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찾아 다녀 보았고, 마주 치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살펴 보며 다녔으나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다.

집집마다 다니며 말을 못하니 대문 안으로 집안을 들여다 보며 찾아 보았으나 찾지를 못해 결국 다른 마을로 건너가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 저녁 밥을 짓는지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 온다. 어머니와 헤어



지고 아직 물도 못 마시고 배도 많이 고프다. 더 어두어지기 전에 이모님을 만나야 할 텐데. 만약 오늘 아무도 찾지 못하면 어떡하나 빨리 찾아보자. 멀리 멧집이 보인다. 한 집으로 가서 들여다 보니 아무도 안 보인다. 다른 집은 좀 떨어져 있었다.

가갸호호 하다 기적같이 이모 찾다

자세히 보니 앞 마당에서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쓴 사람이 보인다. 부지런히 쫓아가서 보니 키질을 하고 있는 여자 분이다. 궁금해서 걸어가 조용히 옆에 서서 흑시 이모님이 아냐냐? 하고 쳐다 보는 순간 눈이 서로 마주 쳤는데 바로 그분이 이모님이셨다.

이럴수가! 이모님도 어머니와 같이 안경을 끼고있었다. 이모님은 나를 보시자마자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고 하시면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으니까 "네가 왜 이렇게 됐냐?" 하시면서 "왜 말도 못하냐, 네 입은 왜 이러냐?" 계속 물으신다. 한참 후에야 "그래 잘 찾아왔다. 고생 많이 했겠다"고 하시면서 무표정한 모습으로 지켜보는 나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신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형제들 모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양도면이라는 곳에 함께 살고 계신다고 알려 주신다. 나는 이모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정말 잘 찾아왔구나 생각하며 그동안 보고 싶었던 아버지와 형과 누나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그동안 이남으로 피난 나가 생사를 모르고 지내던 가족들을 다 찾게 되다니...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좋아 하실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다. 빨리 찾아가 만나 뵙고 싶다. 강화도에서 먼저 온 모든 가족을 다시 만나 남한의 가족들은 양도면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공부를 한 큰 누나가 양도면 사무소에 근무하며 살림을 도왔다. 집님이 강한 형은 마니산에서 많이 나는 감을 때다가 팔고있었다.

전쟁중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라 강보리밥을 먹었는데 점심에 먹을 술에 넣어둔 형과 누나의 밥그릇에서 몰래 조금씩 털어먹기도 했다. 누나는 내 입안의 흑을 보고 아는 의사에게 데려갔다. 그 의사는 입안을 자세히 드러다 보더니 주사기로 흑에서 검은 피를 뽑아냈다. 그리고 난 뒤 신기하게 흑은 사라지고 나는 해방되었다. 그리고 동광중학교에 들어갔다. (계속)

